

#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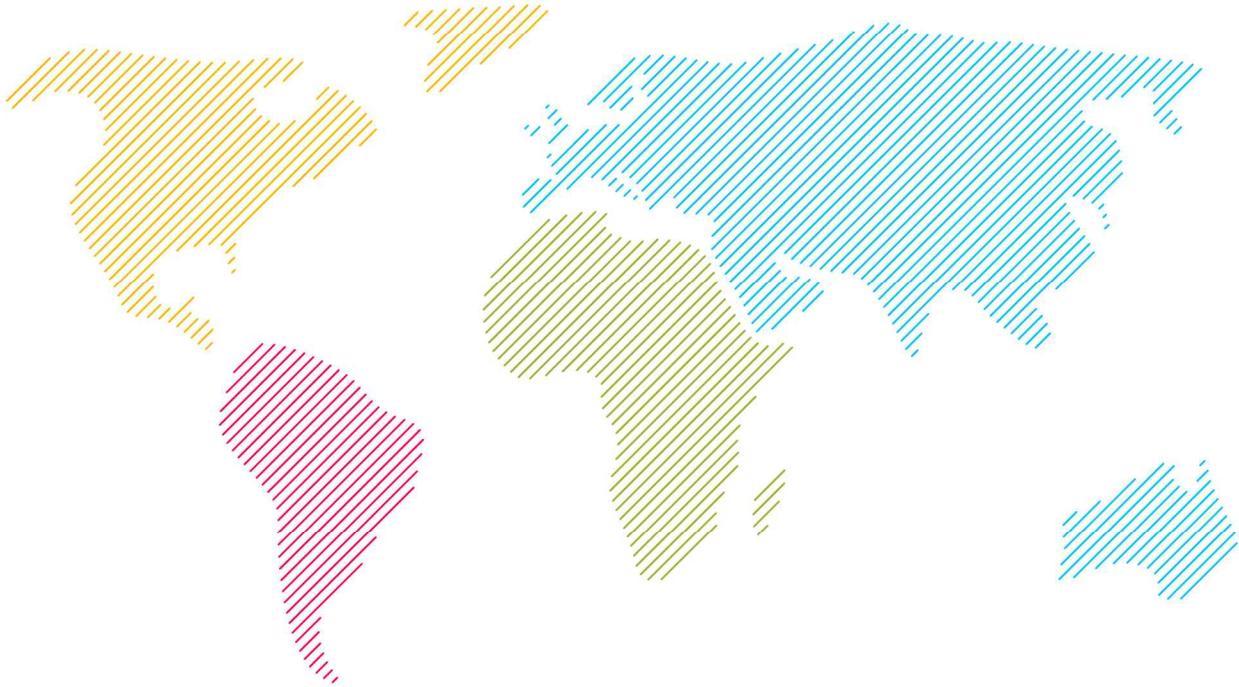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요약

- ▶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집권 이후 국가발전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대선에서 88.6%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 우즈베키스탄 신정부는 2017년 2월 △국가·사회 시스템 확립 △법치주의 보장 및 사법제도 개혁 △경제 발전 및 자유화 △사회부문 발전 △기타 외교·안보정책 등 우선 개혁과제가 포함된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을 채택하였음.
  - ‘경제 발전 및 자유화’ 과제의 세부목표는 △거시경제 안정 △시장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활성화 △농업 현대화 △지역 균형발전 등으로 정리됨.
- ▶ 우즈베키스탄의 시장 자유화 조치가 꾸준히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임.
  - 2017년 변동환율제 도입, 가격 자율화, 관세 인하, 공기업 구조조정 등 시장 자유화 개혁은 일시적 경기둔화를 야기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아울러 외환에 대한 정부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대외무역, 외국인직접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발표된 경제개혁 추진방향과 방안에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단순히 제도적인 개선에 머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질적인 개선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정책에 맞게 무역 다각화, 투자 확대, 지식공유사업(KSP) 또는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우즈베키스탄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 WTO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한·우즈베키스탄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양국간 생산가치사슬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논의를 통해 제조업 부문 이외에 농업, 물류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거시경제안정, 중소기업 활성화, 농업 현대화 등)와 관련하여 한국이 ODA 또는 KSP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방식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차 례

1. 서론
  2. 우즈베키스탄 경제 현황
  3. 우즈베키스탄 신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4.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 1. 서론

■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가발전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대선에서 88.6%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sup>1)</sup>
  - 그는 카리모프 전 대통령의 고향인 사마르칸트 출신으로 2003년 이후 총리를 역임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신정부는 2017년 2월 △국가·사회 시스템 확립 △법치주의 보장 및 사법제도 개혁 △경제 발전 및 자유화 △사회부문 발전 △기타 외교·안보정책 등 우선 개혁과제가 포함된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이하 ‘발전전략’)을 채택하였음.<sup>2)</sup>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00년대에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였으나, 점차 강력한 정부통제, 비대한 정부 부문 등으로 인해 효율성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음.

- 1991년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점진적인 경제개방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CIS국가들과 비교하여 빠르게 경기를 회복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 7%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구가했음.
- 그러나 주로 경제 효율성 저하로 인해 2017년 경제성장률은 5.3%로 둔화되었음.
  - 엄격한 외환통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점진적인 시장경제도입 과정에서 추진된 산업발전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여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양산되었음.

■ ‘경제 발전 및 자유화’ 우선 과제는 카리모프 전대통령 집권 시기 추진되었던 점진적인 시장경제도입정책이 한계를 보이게 되면서 장기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음.

- ‘경제 발전 및 자유화’ 과제의 세부목표는 △거시경제 안정 △시장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활성화 △농업 현대화 △지역 균형발전 등임.<sup>3)</sup>
- 본고에서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현황과 신정부 경제정책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재임이 1회 가능함. 그러나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에 한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수정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1년 취임한 이래 4선에 성공하였으며 2016년 9월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였음.

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7), ‘О Стратегии действий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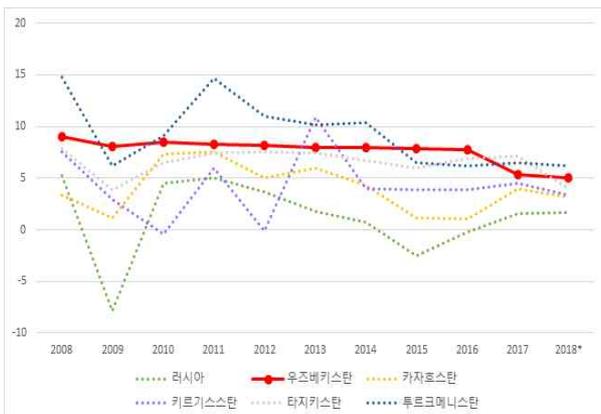
3) 구체적으로 ‘경제 발전 및 자유화’ 과제는 △거시경제 안정화 및 고성장을 유지 △산업 구조조정, 현대화, 다각화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농업 현대화 및 고속 발전 △중소기업 활성화, 사유재산보호 강화, 정부개입 축소 등을 통한 제도적·구조적 개혁 지속 △복합적·균형적 사회·경제 발전 등 5개 하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2. 우즈베키스탄 경제 현황

-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소련 해체 후 독자적 경제발전 노선을 유지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7%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했으나, 2017년 경제성장률이 5.3%로 둔화되었음.
- 카리모프 정부 시절 우즈베키스탄은 고성장을 이뤘으나 높은 물가상승률(그림 2 참고), 높은 실업률,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 공존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독립 후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시장 보호와 산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 천연자원 부문 기업을 제외한 대규모 공 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로 인해 폐쇄적인 경제체제가 강화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대외충격을 적게 받았으며, 2016년까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그림 1 참고).
- 2017년 9월 변동환율제 도입 후 숀(Som)화 가치폭락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은 2016년 7.8%에서 2017년 5.3%로 하락했음.<sup>4)</sup>

그림 1. 우즈베키스탄과 주변국의 경제성장률 변화  
(2008~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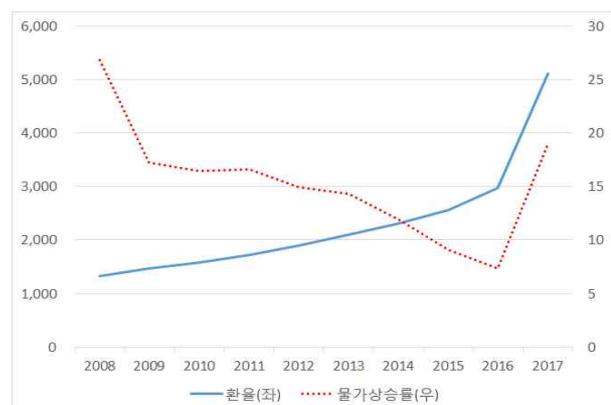


주: 2018년은 추정치.

자료: IMF, Wor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8. 10. 1).

그림 2. 우즈베키스탄 환율과 물가상승률(2008~17년)

(단위: %)



자료: IMF, Wor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8. 10. 1).

- 우즈베키스탄의 폐쇄적인 발전모델은 카리모프 정부 시절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점차 경제적 효율성 저하, 외환 및 통화 정책 실패 등의 한계에 봉착했는데,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단계적으로 시장경제요소 도입을 확대해 사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sup>5)</sup>

4)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국가경제계획과 정보제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 국민소득회계와 소비자물가지수 관리방식 개혁안을 마련해 실행했으며, IMF의 일반공시기준(GDDS: 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을 도입함. 이러한 통계방식 변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sian Development Bank(2018), "How Technology Affects Jobs,"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8*, p. 156. (April)

- 우즈베키스탄 사업환경의 문제점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잦은 세율 변동, 수시 감사 등임.
  - 특히, 법제도의 지속적인 변화와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낮은 투명성과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과 상반되는 사업 환경이 조성되어 외국 기업들의 투자실적이 저조했음.<sup>6)</sup>
-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금융공사(IFC)가 실시한 '2018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지난 2년간 기업환경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 중 10위 안에 선정되었음.<sup>7)</sup>
  - 2017년 1~9월간 전년대비 창업 기업수가 30% 증가하는 등 창업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2017년 4월 온라인 창업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른 시간 단축과 행정 편의성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sup>8)</sup>
  - 세금납부 부문은 수차례 단행된 조세 개혁으로 '2017 기업환경평가'에서 190개 국가 중 138위에서 2018년도 78위, 2019년도 64위를 차지해 사업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sup>9)</sup>

■ 카리모프 정부는 사업환경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법을 수차례 개정했으나 △복잡한 외환 거래 △해외 송금 통제 △외화 매각 의무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임.

- 외화 관련 규제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음.<sup>10)</sup>
  - 우즈베키스탄은 1996년 10월 주요 수출품인 면화가격 하락에 대한 조치로 외화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는 2003년 소폭 완화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인과 법인의 외환 거래와 외화 반출은 엄격하게 통제되었음.<sup>11)</sup>
  - 정부는 은행계좌의 출금액을 엄격하게 통제하였으며, 복잡한 행정절차와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내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엄격한 외환 통제 결과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 △상업은행의 환율 △암시장 환율 등이 모두 다르게 책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음.
  - 5천 달러 이상 해외 송금을 하려면 수개월에 걸쳐 중앙은행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수출기업은 의무적으로 외화를 중앙은행에 매각해야 했음.<sup>12)</sup>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10년 16억 3,5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그 후 하락세를 보임(그림 3 참고).
  - 2000년대 후반 공기업 민영화에 대형 외국인 기업이 참여해 투자액이 급증했으나, 이후 주요 투자국인 러시아와 카자흐

5) 김영진(2009), 「우즈베키스탄의 역설: 체제전환전략, 정착모델 그리고 경제실적」,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pp. 93~110.

6) KOTRA 타슈켄트 무역관(2012),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환경 세계 최하위권」,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17540&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searchIndustryCat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31&row=80>(검색일: 2018. 8. 16).

7) World Bank Group(2017), "Reforming to Create Jobs. Economy Profile for Uzbekistan," *Doing Business 2018*, p. 4.

8) 2018년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87위에서 13단계 상승한 74위를 차지했음. UzbekistanToday, "Uzbekistan was among the top 10 reforming countries to create the most favorable conditions for doing business"(검색일: 2018. 12. 1), [http://ut.uz/en/other/theme\\_year/uzbekistan-was-among-the-top-10-reforming-countries-to-create-the-most-favorable-conditions-for-doin/](http://ut.uz/en/other/theme_year/uzbekistan-was-among-the-top-10-reforming-countries-to-create-the-most-favorable-conditions-for-doin/)(검색일: 2018. 7. 12).

9) World Bank Group(2018), "Training for Reform. Economy Profile for Uzbekistan," *Doing Business 2019*, p. 4.

10) 김학기 외(2018), 『우즈베키스탄 산업현대화 공동연구. 식품가공산업 및 의류기기산업 중심』, p. 6, 산업연구원.

11) Mamuka Tsereteli(2018), "The Economic Modernization of Uzbekistan," *Silk Road Paper*, pp. 14-22.

12) 한국무역협회(2015), 「우즈베키스탄 무역투자에 가장 큰 장벽은?」, [http://www.kita.net/newsBoard/foreignNews/view\\_kita.jsp?sNo=21143](http://www.kita.net/newsBoard/foreignNews/view_kita.jsp?sNo=21143)(검색일: 2018. 12. 1).

스탄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투자액이 하락하고 있음.<sup>13)</sup>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프랑스, 한국 등을 방문하고 정상외교를 통한 투자 협약을 다수 체결했으며,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2월 한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터키, 일본 등 7개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음.<sup>14)</sup>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미국과 프랑스 국민 방문 시 12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러시아와 2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을 체결했음.<sup>15)</sup>

그림 3. 중앙아시아 주요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2008~17년)



자료: UNCTAD, FDI database(검색일: 2018. 10. 1).

그림 4. 우즈베키스탄 교역수지(2008~17년)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검색일: 2018. 7. 12).

■ 우즈베키스탄은 △농산물 수출 독점 △수출 수입(收入)액 매각 의무 △수출계약 허가 등 정부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외무역이 잠재력에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최근 각국에 대외무역사무소를 설치해 메이드 인 우즈베키스탄(Made in Uzbekistan)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 중임.

-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후 수출 호조세로 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1996년 원자재 가격 하락 여파로 정부에서 수출입을 관리한 결과 정부의 지원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어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이루지 못함.
- 우즈베키스탄의 수출품목 중 원자재 비중이 60%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은 수입국의 경제침체나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매우 취약함.
- 2002년 높은 관세 부과로 수입을 차단한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정부의 수입대체와 수출장려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 우즈트레이드(Uztrade)는 2015년 우즈베키스탄 중소기업의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원 플랫폼을 토대로 한국, 미국, 유럽, 인도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 대표 사무소를 설치해 우즈베키스탄 제품 수출을 지원하고 있음.<sup>16)</sup>

13) UNCTAD(2011), *World Investment Report*, p. 81, UNCTAD(2015), *World Investment Report*, p. 88.

14)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из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https://mfa.uz/ru/consular/visa/>(검색일: 2018. 12. 1).

15) European Parliament(2018), "Uzbekistan come in from the cold. A new era of reforms," Briefing, pp. 8-12.

1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17),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еятельности АО

표 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2년					2017년				
	국가명	수출	수입	총계	비중	국가명	수출	수입	총계	비중
1	러시아	2,759	2,115	4,874	20.2	중 국	2,239	2,728	4,967	18.5
2	중 국	2,812	1,759	4,571	8.4	러시아	2,103	2,708	4,811	17.9
3	카자흐스탄	1,953	962	2,915	6.8	카자흐스탄	1,065	997	2,062	7.7
4	터 키	882	423	1,305	5.7	터 키	872	674	1,546	5.7
5	한 국	96	1,129	1,225	5.5	한 국	120	1,240	1,360	5.1
-	소 계	8,502	6,388	14,890	46.6	소 계	6,399	8,347	14,746	54.8
-	총 계	9,694	8,729	18,423	100.0	총 계	13,894	13,013	26,90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IMF,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검색일: 2018. 7. 12).

- 2017년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기회복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대외환경 개선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음.
- 2017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중국(18.5%), 러시아(17.9%), 카자흐스탄(7.7%), 터키(5.7%), 한국(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표 1 참고).<sup>17)</sup>
  - 중국의 수출신용 지원 등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어 2013년을 기점으로 우즈베키스탄의 1위 교역대상국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변경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 농촌 삶의 질 개선 등 극심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일자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 청년들의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함.

-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75%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16%는 절대 빈곤층으로 분류됨.<sup>18)</sup>
- 우즈베키스탄의 인구증가율은 매우 높으며, 2017년 1월 기준 0~9세, 20~29세의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평균 연령이 28.5세로 향후 20년간 고용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sup>19)</sup>
  -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한국, 미국 등 해외에서 자국으로 송금하는 액수는 정부 세입의 일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sup>20)</sup>
- 우즈베키스탄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 수치의 오류와 인구증가 대비 산업성장이 미미했던 것에 기인함.
  - IMF는 경제활동인구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sup>21)</sup>

«Узтадбиркорэкспорт», Uztrade, Торговье дома <https://uzte.uz/ru/menu/torgovye-doma>(검색일: 2018. 12. 1).

17)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2018),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7 года pp. 139-140.

18)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Численность постоянного населения(검색일: 2018. 10. 1).

19)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Численность постоянного населения(검색일: 2018. 10. 1).

20) 김학기 외(2018), p. 6.

21) IMF(2018), "Republic of Uzbekistan. 2018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18/117, pp. 4-5.

### 3. 우즈베키스탄 신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 2016년 12월에 취임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 폭넓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12월 대선에서 88.6%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기존 정부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경제 △외교 △사회 분야의 개혁을 단행함.
  -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주요 개혁은 △외화 자율화 △사업환경 개선 △세제개혁 △국방개혁 △내무부 개편 △재난관리본부 개편 △교육제도 개혁 등임.
  - 2017년 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은 2017~2021년간 △국가 운영 효율화 △사법 개혁 및 법질서 강화 △경제 발전 및 자유화 △사회·복지 확대 △외교 및 안보 강화 등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데,<sup>22)</sup> 본고에서는 경제 발전 및 자유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 발전전략은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정책의 우선방향 및 내각의 단·장기 액션플랜’ 내용을 일부 포함하며, 보다 개혁적인 성격을 가짐.<sup>23)</sup>
  - 경제 발전 및 자유화는 △거시경제 안정 △시장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활성화 △농업 현대화 △지역 균형발전 등의 세부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음.

2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7), ‘О Стратегии действий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3) Norma.uz (2015), ‘Программа действ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 ближайшую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표 2. 경제 분야 목표와 주요 내용

경제 분야 목표	주요 정책		세부 내용
거시경제 안정	- 외환 자유화		-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 환전 규제 폐지 - 외화 의무 매각 폐지
	- 외화 반입·반출 간소화		- 2,000달러 이하 신고 폐지 - 5,000달러 이하 사전허가 폐지
	- 조세 개혁		- 조세 부담 완화 - 세율 통합 및 세무보고 간소화 - 조세 관련 법령 통일 -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조세 행정 체계 개선
시장경쟁력 확보	기업환경 개선	- 사유재산 보호 및 사업환경 개선	- 행정절차 간소화 - 수시감사제도 폐지 - 동일 세율 보장 - 수출 계약서 규제 완화
		- 디지털 공공서비스 도입	- '단일 창구' 서비스 도입 - 디지털 정부 서비스 확대
	민영화 기업의 효율적 운영	- 민영화 추진 위원회 구성	- 민영화 대상 기업 관리 - 민영화 기업 사후 관리
	대외무역 활성화	- 수출 자율화	- 10만 달러 이하 수출 자율화 - 수출입계약 인·허가 발급 간소화 - 정기세관신고서 도입
- 수출입 지원		- 우즈아그로엑스포트사 독점 해제 - 농산물 수출 자유화	
중소기업 활성화	- 창업환경 개선		- 창업 지원 교육 강화 - 창업 컨설팅 지원
	- 가족창업 지원		- 저리 용자 제공 - 기업운영 교육 시행
농업 현대화 개혁	- 농촌지역 재정비		- 식수 문제 해결 - 도로 및 대중교통망 구축 - 사회복지시설 마련
지역 균형발전	- 세금 수입 균등 분할 및 활용 방안 마련(예정)		

자료: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7), "Стратегия действий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을 토대로 저자 정리.

■ [거시경제 안정]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쟁에 부합하는 외환 규제 도입 △국내기업의 수출 잠재력 강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투자·사업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외환 자유화는 미르지옌프 행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실친한 조치로 고정환율제를 비롯하여 기업과 개인의 환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sup>24)</sup>
- 우즈베키스탄은 2003년 외환제한의 철폐를 규정하는 IMF 8조를 승인했으나, 대규모 외국인투자자와 공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전액 환전을 진행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화 2,000달러 이하 반입·반출 시 의무 신고를 폐지했으나, 2,000달러 이상 신고 의무, 5,000달러 이상 사전허가 의무 등을 유지하여 외화 반입·반출을 완전히 자유화하지는 않았음.<sup>25)</sup>
- 2018년 3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구상을 발표했으며, 연내 시중 금융기관 간 단기유동성비용 공유를 위한 통합 플랫폼 개설을 계획 중임.<sup>26)</sup>

2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7), "О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мерах по либерализации валютной политики."

2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7),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упрощению порядка ввоза и вывоза наличной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физическими лицами."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조세 부담 완화, 세율 통합, 세무보고 간소화, 조세 관련 법령 통일,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조세행정 체계 개선 등을 목표로 조세 개혁을 진행 중임.<sup>27)</sup>
- 현재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공개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최종 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음.<sup>28)</sup>

■ [시장경쟁력 확보: 기업환경 개선] 우즈베키스탄은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의 수시감사제도 폐지, 디지털 공공서비스 확대 등 기업환경 개선 절차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 2017년 1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향후 2년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분야의 모든 감사를 중단한다고 공표했으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각 기관 관리자들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sup>29)</sup>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상공회의소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경제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국가 개입 축소 등 민간기업의 발전을 정부의 우선 목표로 지정한 바 있음.
-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모든 수시 감사제도 폐지 △재등록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초로 적용된 동일 세율 보장 △수출계약서 등록 규제 완화 △동일 제품의 수출허가증 발급기간 단축 △위생·환경·건축·소방기준 통일 등을 들 수 있음.<sup>30)</sup>
- 해당 문서는 2016년 10월 미르지요예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한 첫 공식문서로서 경제발전의 주요 방향을 정하고 향후 발전전략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시장경쟁력 확보: 대외무역 활성화]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와 공기업의 수출 독점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무역 활성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10만 달러 이하 수출 계약의 자유화, 수출입계약의 인·허가 발급 절차 간소화, 농산물 수출 자유화 등 규제를 완화함.
- 온라인 세관신고서와 동일 계약상 동일 품목에 대한 정기세관신고서를 도입해 통관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sup>31)</sup>
- 기존 우즈아그로엑스포트사(Uzagroexport)의 농산물 수출 독점은 농지 개발과 농작물 품질에 악영향을 끼쳤으나, 2017년 7월 1일부터 독점이 해제되어 대외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sup>32)</sup>
- 수출 자유화는 무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시장경쟁력 확보: 민영화 기업의 효율적 운영]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후 공기업 민영화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26) Центральн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18),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и.”

27) PWC(2018), Uzbekistan, Republic of Corporate - Significant developments, <http://taxsummaries.pwc.com/ID/Republic-of-Uzbekistan-Corporate-Significant-developments>(검색일: 2018. 11. 15).

28) Подробноуз(2018), Минфин опубликовал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вариант Особенной части разрабатываемого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https://podrobno.uz/cat/economic/minfin-opublikoval-/?sphrase\\_id=217602](https://podrobno.uz/cat/economic/minfin-opublikoval-/?sphrase_id=217602) (검색일: 2018. 12. 1).

29)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Шавката Мирзиёева Олий Мажлису(2017. 12. 22), <http://uza.uz/ru/politics/poslanie-pr ezidenta-respubliki-uzbekistan-shavkata-mirziyeev-23-12-2017>(검색일: 2018. 7. 12).

30) Ibid.

3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18), “О мерах по коренному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32) UzbekistanToday, “Uzagroexport” JSC deprived of the status of monopoly, <http://ut.uz/en/business/uzagroexport-jsc-deprived-of-the-status-of-monopoly/>(검색일: 2018. 7. 12).

적자 운영과 활동 중단 등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 효율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독립 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형기업과 중견기업 6,500개를 포함한 약 3만 건의 민영화 추진했으며, 현재 민간 부문의 산업생산량은 전체 산업생산량의 94%를 차지하고 있음.<sup>33)</sup>
- 민영화 기업의 운영 성과를 살펴본 결과 약 2천여 개의 적자기업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1천여 개는 기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sup>34)</sup>
- 미르지옌예프 정부는 민영화뿐 아니라 민영화된 기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목표로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및 자유경쟁 환경 조성 위원회를 구성함.<sup>35)</sup>
-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및 자유경쟁 환경 조성 위원회는 투자유치를 위해 상환금액을 최소화하고, 외국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민영화를 통한 민간 부문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8년을 ‘활발한 기업활동,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지원의 해’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창업 희망자 교육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음.<sup>36)</sup>

- 2017년 말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처음 언급된 ‘활발한 기업활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방법 그리고 신 기술 융합을 통한 신사업 발굴을 목표로 함.<sup>37)</sup>
- 국민이 기업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으며,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중임.
  -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과정과 컨설팅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운영자 양성 과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sup>38)</sup>
-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가족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안디잔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에 3%대 저리 융자금 제공, 창업희망자 대상 기업운영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sup>39)</sup>

■ [농업 현대화] 우즈베키스탄은 국민의 절반이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여러 면에서 환경이 낙후되어있으므로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망 구축 △농업시설 현대화 등 농촌지역 재정비가 최우선 과제임.

- 우즈베키스탄은 농촌지역의 식수 문제 해결, 도로 및 대중교통 체계 구축, 송전망 구축, 병원·학교 등 사회복지시설 마련, 유통망 구축 등 농촌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함.<sup>40)</sup>

3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17),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одействию приватизирован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и развитию конкурен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17), “О мерах по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с приватизирован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34) Ibid.

35) Ibid.

36) Uzdaily, “Uzbekistan announces 2018 as Year of support of active entrepreneurship, innovative ideas and technologies,” <http://www.uzdaily.com/articles-id-42072.htm>(검색일: 2018. 7. 12).

37)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Шавката Мирзиёева Олий Мажлису(2017), <http://uza.uz/ru/politics/poslanie-prezidenta-respubliki-uzbekistan-shavkata-mirziyeev-23-12-2017>(검색일: 2018. 7.1 2).

38)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17), “О мерах по коренному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защиты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бизнеса 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39) ИА REGNUM, “«Каждая семья -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в Узбекистане дадут кредиты под 3%,” <https://regnum.ru/news/2421442.html>(검색일: 2018. 7. 12).

- 2018년 4월부터 가장 낙후된 농촌 마을 2곳을 시작으로 2018년도 총 368개 마을에서 재정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2019년에는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당 프로그램에 2018년 3조 400억 슴(약 4억 1,500만 달러)이 투입될 예정임.
- 농업 개혁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농산품인 면화보다 야채, 곡물, 과일 등 식량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 가공, 보관 등이 가능하도록 기존 농업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임.

■ [지역 균형발전] 수도와 기타 지역의 소득, 주택,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 수입의 균등한 분할 및 활용 방안을 마련 중임.

- 2017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쉬켄트의 평균 임금은 1,025만 슴으로 가장 낮은 카라칼파크스탄 자치 공화국의 319만 슴과 비교해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고).<sup>41)</sup>
- 2018년 8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역 단체장들과의 회의에서 8개 지역의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지역별로 실무 담당자를 지정했음.<sup>42)</sup>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식수 공급 △다세대 주택 보수 △상하수도 공급 △전력 공급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개선되도록 마을에서 시 단위로 또는 지방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음.

그림 5. 우즈베키스탄 지역별 평균 임금(2017년)

(단위: 1천 슴)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검색일: 2018. 10. 1).

40)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18), “О программе ‘Обод киллоқ’”;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17),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Обод киллоқ’ в 2018 году.”

41)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검색일: 2018. 10. 1).

42) Газета.uz, “Чтобы рост был не только на бумаге», Новая система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https://www.gazeta.uz/ru/2017/08/09/development/>(검색일: 2018. 10. 1).

## 4. 시사점

- 우즈베키스탄의 시장 자유화 조치가 꾸준히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임.
  - 2017년 변동환율제 도입, 가격 자율화, 관세 인하, 공기업 구조조정 등 시장 자유화 개혁은 일시적 경기둔화를 야기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아울러 외환에 대한 정부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대외무역, 외국인직접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발표된 경제개혁 추진방향과 방안에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단순히 제도적인 개선에 머물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각종 조치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실제로 투자자들 또는 기업가들에게 친화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정책에 맞게 무역 다각화, 투자 확대, ODA 및 KSP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은 2010년대 들어 부진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의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량은 2014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전체 교역량의 0.1%(약 12억 달러)에 그치고 있음.
    -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2007년 이래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누적액의 0.17%(6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함.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부문에서 생산가치사슬의 기초가 일부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정책에 발맞추어 무역 다각화,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경우 양국의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제조업에(2017년 기준 누적액의 64.2%) 직접투자하였으며, 자동차 부품 수출(2017년 기준 전체 수출의 46.8%)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 WTO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한·우즈베키스탄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양국간 생산가치사슬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논의를 통해 제조업 부문 이외에 농업, 물류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지식공유사업(KSP) 또는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방식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거시경제 안정과 관련하여 KSP를 통해 효과적인 통화정책 구상 및 시행, 공공행정서비스 디지털화, 민영화 기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ODA를 통해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구상 및 운영을 지원하고, 농업 현대화와 관련하여 식수 문제 해결, 도로 및 대중교통 체계구축, 송전망 구축, 병원·학교 등 사회복지시설 마련, 유통망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KISP**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영진. 2009. 「우즈베키스탄의 역설: 체제전환전략, 정착모델 그리고 경제실적」.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김학기 외. 2018. 「우즈베키스탄 산업현대화 공동연구, 식품가공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중심」. 산업연구원.

### [영문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 2018.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8. How Technology Affects Jobs. April 2018."  
European Parliament. 2018. "Uzbekistan come in from the cold. A new era of reforms." Briefing.  
IMF. 2018. "Republic of Uzbekistan. 2018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18/117.  
Tsereteli, Mamuka. 2018. "The Economic Modernization of Uzbekistan." Silk Road Paper.  
UNCTAD. 2011. *World Investment Report*.  
World Bank Group. 2017. "Reforming to Create Jobs, Economy Profile for Uzbekistan." *Doing Business 2018*.  
\_\_\_\_\_. 2018. "Training for Reform, Economy Profile for Uzbekistan." *Doing Business 2018*.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2018),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7 года*.

### [웹사이트]

- 한국무역협회. 2015. 우즈베키스탄 무역투자에 가장 큰 장벽은? [http://www.kita.net/newsBoard/foreignNews/view\\_kita.jsp?sNo=21143](http://www.kita.net/newsBoard/foreignNews/view_kita.jsp?sNo=21143)(검색일: 2018. 12. 1).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Виз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https://mfa.uz/ru/consular/visa/). <https://mfa.uz/ru/consular/visa/>(검색일: 2018. 12. 1).  
타슈켄트 무역관. 2012.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환경 세계 최하위권」,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17540&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31&row=80>(검색일: 2018. 8. 16).  
UzbekistanToday. "‘Uzagroexport’ JSC deprived of the status of monopoly." <http://ut.uz/en/business/uzagroexport-jsc-deprived-of-the-status-of-monopoly/>(검색일: 2018. 7. 12).  
UzbekistanToday. "Uzbekistan was among the top 10 reforming countries to create the most favorable conditions for doing business." [http://ut.uz/en/other/theme\\_year/uzbekistan-was-among-the-top-10-reforming-countries-to-create-the-most-favorable-conditions-for-doin/](http://ut.uz/en/other/theme_year/uzbekistan-was-among-the-top-10-reforming-countries-to-create-the-most-favorable-conditions-for-doin/)(검색일: 2018. 7. 12).  
Uzdaily. "Uzbekistan announces 2018 as Year of support of active entrepreneurship, innovative ideas and technologies." <https://www.uzdaily.com/articles-id-42072.htm>(검색일: 2018. 7. 12).  
Газета.uz, «Чтобы рост был не только на бумаге». Новая система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https://www.gazeta.uz/ru/2017/08/09/development/>(검색일: 2018. 10. 1).  
ИА REGNUM, «Каждая семья –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в Узбекистане дадут кредиты под 3%, <http://regnum.ru/news/2421442.html>(검색일: 2018. 7. 12).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검색일: 2018. 10. 1).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из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https://mfa.uz/ru/consular/visa/>(검색일: 2018. 12. 1).

Norma.uz . 2015. “Программа действ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 ближайшую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Podrobno.uz. 2018. Минфин опубликовал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вариант Особенной части разрабатываемого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https://podrobno.uz/cat/economic/minfin-opublikoval-/?sphrase\\_id=217602](https://podrobno.uz/cat/economic/minfin-opublikoval-/?sphrase_id=217602).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Шавката Мирзиёева Олий Мажлису. 2017. <http://uza.uz/ru/politics/poslanie-prezidenta-respubliki-uzbekistan-shavkata-mirziyeev-23-12-2017>(검색일: 2018. 7. 1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еятельности АО «Узтадбиркорэкспорт». Uztrade, Торговые дома.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7. “О мерах по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с приватизирован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7.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Обод кишлок» в 2018 году.”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8.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7. “О Стратегии действий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7. “О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мерах по либерализации валютной политик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7.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упрощению порядка ввоза и вывоза наличной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физическими лицам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7.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одействию приватизирован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и развитию конкуренци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7. “О мерах по коренному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защиты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бизнеса 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8. “О мерах по коренному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8. “О программе ‘Обод кишлок’.”

## [부록]

부록 표 1.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분야 주요 대통령령 및 세부내용

날짜	대통령령	세부내용
2016.10.5	사유재산 보호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보장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1. 1. 시행</li> <li>- 모든 수시 감사 폐지(단, 기업의 폐업 또는 위원회의 승인 사안 제외)</li> <li>- 위법사항 최소 적발 시 행정·형사처분 면책 적용</li> <li>- 재등록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초 등록 시 적용 세율 5년간 보장(단, 자원세, 관세 제외)</li> <li>- 수출 시 수출계약서 등록 규제 완화</li> <li>- 동일 제품 수출허가증 재발급 시 발급기한 단축</li> <li>-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화·외화정책 마련</li> <li>- 위생·환경·건축·소방 기준 통일 및 공표</li> </ul>
2017.2.1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등기 시 '단일창구(Single window)' 서비스 제공(단, 금융기관 제외)</li> <li>-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서비스 확대</li> <li>- 인터넷을 통한 인·허가증 발급 서비스 도입</li> </ul>
2017.2.7	우즈베키스탄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21년간 우즈베키스탄 발전 주요 목표 지정</li> <li>- 분야별 발전 세부 목표 수립</li> </ul>
2017.3.31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즈베키스탄 정부 추진 투자정책 관리 및 운영 기관으로 지정</li> <li>- 해외투자 유치, 지역간 투자금 분배 및 관리</li> <li>- 투자유치 방안 및 투자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li> </ul>
2017.4.14	대외무역 관리체계 개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즈베키스탄 대외무역부를 정부추진 대외무역 정책 관리 및 운영 기관으로 지정</li> <li>-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 촉진 방안 마련</li> <li>- 수출 품목 DB 작성 및 관리</li> </ul>
2017.4.18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및 자유경쟁 환경 조성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화 대상 기업 선정, 지역별 및 분야별 분류</li> <li>- 민영화 기업 운영 효율성 및 토지 사용여부 관리</li> <li>- 민영화 기업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로드맵 마련</li> </ul>
2017.5.5	대통령 산하 기업 권리 및 이익보호 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정기·수시감사 시 권익 침해 사안 관리 및 대통령에 수시 보고</li> <li>- 기업 자율 운영 및 권익 보호 강화 정책 마련</li> <li>- 기업 권익 보호 정책 적용 모니터링</li> </ul>
2017.5.27	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 달러 이하의 수출 자율화(일부 농산물 제외)</li> <li>- 수출일 기준 90일 이내 수출 대금 입금 조건</li> <li>- 귀금속 수출입 허가 규제 유지</li> </ul>

날짜	대통령령	세부내용
2017.6.19	기업 권리 보호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운영 초기 단계 지원 강화</li> <li>- 기업인 의견 수렴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방안 마련</li> <li>- 창업지원기관을 통한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 기능 강화</li> <li>- 기업 운영자 양성 과정 신설</li> <li>- 대외무역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촉진 제도 마련</li> </ul>
2017.6.21	수출업체 지원 및 대외경제활동 개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6. 1.부터 시행</li> <li>- 전액 선입금 조건 농산물 직접 수출 허가</li> <li>- 제조일로부터 5년경과 중고 장비 수출 허가제 폐지</li> <li>- 수출입 허가증 발급 기간 최장 3일로 단축</li> </ul>
2017.7.18	조세행정 개선을 통한 세액증액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행정 관리에 최신 정보통신 기술 도입</li> <li>- 2018. 1. 1.부터 시행</li> <li>- 성실납세의무자 대상 조세감면 혜택 제공</li> <li>- 세무감사 결과 발생한 차액납부 거부 시 행정소송 진행</li> </ul>
2017.7.28	수출기업 촉진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8. 1. 시행</li> <li>- 수출기업의 외화 수입 중 중앙은행에 외화 수입의 25% 강제 매매 제도 폐지</li> </ul>
2017.8.1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효율성 제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21년간 국제 통계 수집 방식 수렴 및 도입</li> <li>- 통계 정보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li> <li>- 분야별 발전 지수, 경제 자유화 및 개혁에 대한 통계 분석</li> </ul>
2017.8.17	중소기업 지원 국가운영 펀드 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금융기관 용자액의 최대 50%, 50만 달러 한도 보증서 제공</li> <li>- 민간 금융기관의 100만 달러 미만 이자 소득 중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40% 지원</li> </ul>
2017.9.3	통화정책 자유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개인 환전 자유화</li> <li>- 고정 환율제 폐지</li> <li>- 통화 안정성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 도입</li> </ul>
2017.09.14	통화정책 개선 추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적절한 통화·재정 정책 도입</li> <li>- 민간 은행의 시장 금리 조정 자율화</li> <li>- 해외 기관의 거시경제 분석 및 예측 방법 도입</li> </ul>
2017.11.6	수출입 인·허가 및 계약 등록 간소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11. 10.부터 시행</li> <li>- 10만 달러 미만 수출입 계약 인·허가 발급 절차 간소화</li> </ul>
2017.11.7	대외무역 자유화 및 유관 기업 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12. 1.부터 시행</li> <li>- 통관신고서 작성 후 120일 경과 수출대금 미입금 시 연체 발생</li> <li>- 신선 농산물 제외 기타 물품 수출 시 신용장, 보증서 없이 거래 가능</li> </ul>
2017.12.7	개인 외화 반출 절차 간소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1. 1.부터 시행</li> <li>- 2,000달러 초과 외화 반출·반입 허가제 폐지, 신고제 도입</li> <li>- 외화 반입 시 허가제 완전 폐지, 반출 시 5000달러 초과 시 허가신청.</li> </ul>

날짜	대통령령	세부내용
2017.12.18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및 기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즈베키스탄 개발 프로그램 자금지원 펀드 신설</li> <li>- 정부예산, 펀드자금, 해외투자자금 운용</li> <li>- 10~15년간 정부 및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효율적 자금 배분 역할</li> </ul>
2018.3.29	농촌지역 재정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수 문제 해결</li> <li>- 도로 및 대중교통 체계 구축</li> <li>- 송전망 구축</li> <li>- 병원·학교 등 사회복지 강화</li> <li>- 재래시장, 소규모 매점 등 유통망 구축</li> </ul>
2018.4.11	기업 활동 인·허가 절차 완화 및 기업환경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6. 1.부터 시행</li> <li>- 특정 분야 인·허가 폐지</li> <li>- 인·허가 발급 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li> <li>- 기존 중앙정부의 발급 역할 지방정부로 확대</li> </ul>
2018.4.12	우즈베키스탄 통관 절차 효율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7. 1.부터 시행</li> <li>- 동일 계약 상 동일 품목에 정기세관신고서 도입</li> <li>-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세관신고서 도입</li> <li>- 사전신고제도 도입</li> </ul>
2018.5.31	해외 수출입 지원 업체 선정 기준 마련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관세 면제 혜택 제공 최소화</li> <li>- 구체적 사회, 경제,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세금·관세 면제 혜택 제공</li> <li>- 세금·관세 면제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 및 최장 3년간 유지</li> </ul>
2018.6.7	"모든 가족은 기업가" 국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희망자 대상 저리 사업운영 자금 대출</li> <li>- 창업 희망자 대상 기업 운영 관련 교육 제공</li> <li>- 가족기업의 시장 인프라 구축 지원</li> </ul>
2018.6.29	조세정책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 부담 완화</li> <li>- 세율 통합 및 세무보고 간소화</li> <li>- 조세 관련 법령 통일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li> <li>- 조세 행정 체계 개선</li> </ul>

자료: 저자 정리.